

『영미연구』

제54집 (2022): 3-32

<http://doi.org/10.25093/ibas.2022.54.3>

긍정심리학 관점에서 읽는 루이스 씨커의 『구덩이』

강 서 정

단독 / 국민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루이스 씨커의 『구덩이』를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긍정심리학의 관심 분야는 긍정 정서, 긍정 특질, 긍정 기관이다. 『구덩이』는 주인공 소년들의 친밀관계와 성장 과정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긍정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 심리학을 프리즘으로 『구덩이』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성장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그 개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 기관의 역할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취약층에 대한 자선이라기보다 그들의 강점을 계발하게 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협력하는 길임이 이 작품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제로와 같은 소외계층의 정체성은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할 때 바로 설 것이다. 제로와 스탠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산을 오르는 모습, 그것은 아동청소년 문학의 행복한 결말을 통해 작가가 미국사회에 던지는 심오한 긍정기관의 청사진이다.

주제어: 구덩이, 긍정심리학, 미국의 꿈, 긍정특질, 긍정기관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루이스 쎄커(Louis Sachar)의 『구덩이』(*Holes*, 1998)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긍정심리학의 관심 분야는 긍정 정서(positive states),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이다. 『구덩이』는 주인공 소년들의 친밀관계와 성장 과정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긍정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을 프리즘으로 『구덩이』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자신을 좋아할 수 없었던 아이, 스탠리 옐내츠(Stanley Yelnats)는 유명 선수의 운동화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촉법소년의 캠프에 들어간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개발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캠프는 각 구성원의 인성을 개선한다는 허울 아래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이다. 초록 호수 캠프(Green Lake Camp)라 불리지만, 이곳은 인간의 탐욕과 편협한 종교관, 인종차별 등으로 저주받은 사막이다. 작품은 이 캠프 안에서 미국의 감추어진 병폐를 통시적, 동시적으로 조망한다.

때문에, 이 작품은 한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에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에 대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부조리한 사회가 개선되어야 하는 동시에 개인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구덩이』를 분석할 때 개인의 성장과 긍정 정서 획득 과정, 긍정적 특성 개발의 관점은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가 긍정 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분석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이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정서적인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권석만 23-24).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심리학은 주로 개인의 이상 심리(Abnormal Psychology) 및 그것의 개선 방법에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점차 심리학이 이상 증상의 해소에서 “인간의 행복과 성장 추구”의 적극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긍정심리학은 인

간의 긍정 상태는 어떻게 구성되고 유발되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증진방법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또한, 긍정적인 성격특성 및 강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학은 “구성원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 기관”에 주목한다.

양윤정은 『구덩이』를 동화구조 및 동화적 특성들, 즉 “불운과 행운, 운명의 힘과 운명적 과제 수행, 마법적 사물, 우연한 사건들, 해피엔딩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그녀는 특히 “별 볼일 없는” 스탠리와 제로가 “자비롭고, 용감하고, 총명한 소년들로 성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동화적 특성이라 평가한다(83). 그녀의 분석은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동화적 특징들이 미국사회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김양순이 지적하듯이 이 작품은 “청소년 문학으로 단순히 쉽고 재미있게 읽히는 소설을 넘어서는 고도의 문학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30).

일부 비평가들은 스탠리의 캐릭터와 관련하여 일관성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일반인보다 열등해 보이는 작품 초반의 스탠리가 후반에 갑자기 영웅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니콜라예바(Maria Nikolajeva)는 『구덩이』가 아동청소년 문학의 일반적 특성상 행복한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기에 캐릭터의 일관성이 깨졌다고 설명한다(437). 그러나 이 작품을 스탠리의 품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하면, 스탠리의 성장이 긍정심리학 프레임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루이스 씨커의 『구덩이』를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즉, 스탠리 엘너츠의 성장 과정을 조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며, 삶에서 중요한 가치를 발견, 추구해 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성찰 없이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때문에, 미국 사회를 깊이 성찰하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병폐를 극복하고 긍정 기관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우선 주인공 스탠리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다음으로 작품에 드러나는 미국 사회의 병폐와 극복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스탠리의 성장 과정

작품은 초록 호수 캠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곳은 스탠리가 장차 생활하게 될 공간이자 스탠리가 존재하기 전 미국의 병폐를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역사와 공적인 역사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이 장소의 명칭 “초록 호수 캠프”는 전혀 실체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곳은 초록빛도, 호수도 없고, 성장을 위한 캠프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막이나 다름없는 이 공간의 이름은 이 때문에 “노란 점박이 도마뱀”(Yellow-spotted lizards)만큼이나 아이러니하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믿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노란 반점 도마뱀을 믿지 않는다. ... 사실 과학자들이 그 도마뱀 이름을 ‘노랑 반점’이라고 지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다. 정확히 열한 개의 노랑 반점이 있긴 하지만, 몸 색깔이 노랑과 초록이어서 반점들을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노랑 반점 도마뱀은 길이가 15-25센티미터이고 눈이 빨갛다. 정확히 말하면 눈은 노랗고, 눈을 둘러싼 피부가 빨갛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이 빨갛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빨이 까맣고 혀바닥이 우유처럼 하얗다.!)

A lot of people don't believe in curses. A lot of people don't believe in yellow-spotted lizards either, ... Actually, it is kind of odd that scientists named the lizard after its yellow spots. Each lizard has exactly eleven yellow spots, but the spots are hard to see on its yellow-green body. The lizard is from six to ten inches long and has big red eyes. In truth, its eyes are yellow, and it is the skin around the eyes which is red, but everyone always speaks of its red eyes. It also has black teeth and a milky white tongue. (H 41)

작중 화자는 빨간 눈이나 까만 이빨, 하얀 혀처럼 더 눈에 띄는 특성으로 도마뱀의 이름을 짓지 않고 왜 잘 드러나지 않는(하지만 초록색 피부에 정확히 11개가 있는) 노랑 반점으로 도마뱀을 지칭하는지 궁금해한다. 이 도마뱀의 노랑 반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는 도마뱀과 매우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럼 거의 항상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도마뱀의 빨간 눈이지만, 실제로 눈은 노란색이고 빨간 것은 눈 주위의 피부이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주요 주제가 “겉보기와 다른 실체”임을 파악하게 될 때 독자는 오히려 도마뱀의 작명이 적절한 것임을 알게 된다.

“초록 호수 캠프”는 지금은 저주로 사막이 되어버렸지만, 본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았던 과거를 반영한다. 스탠리가 친구 제로(Zero)와 함께 신화적 공간에서 화합의 제의(ritual)를 완성한 후 초록 캠프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후 걸스카우트(Girl Scout) 캠프로 바뀌게 된다. 다시 말해 이곳은 마치 동화처럼, 회복해야만 하는 낙원의 이름을 그대로 지닌 채 잠들어 있다. 초록빛도, 호수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성장의 공간도 아니지만, 과거에 초록 호수 마을이었고 미래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더불어 실제 목적은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이지만, 스탠리의 성장을 이끌어낸 진정한 캠프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스탠리 엘내츠의 이름은 거울에 비친 상처럼 앞뒤의 철자가 똑같다(김양순 36).²⁾ 이는 작가가 스탠리 엘내츠 가문과 스탠리라는 소년을 통해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때문에, 이 작품은 신화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 잠들어 있는 과거를 깨우기 위해서 신화적 제의가 필요하다. 이 제의가 땅에 내린 저주를 풀면,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모든 불협화음과 갈등이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된다. 스탠리와 제로는 성인식을 위해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 이들은 한 개인이라기보다 유형이고, 상징적 존재이자 미국이라는 장소를 신화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캠프 속 스탠리 엘내츠의 성장은 주인공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서 역사적 공간 미국을 새롭게 변화시킬 개혁의 상징이 된다.

스탠리는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데릭 던(Derrick Dunne)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 그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캠프에 오기 전에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선생님이나 데릭에게 저항한 적도 없었다.

그런 그는 캠프 사회에 들어오면서 “원시인”(Caveman)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며, 고된 일을 지속하면서 살이 빠지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자신의 몸무게를 삼에 실어 첫 구덩이를 파냈을 때 스탠리는 큰 성취감을 맞는다. 이러한 성취감은 그가 이 캠프에서 얻게 되는 자존감의 시작이다.

그는 구덩이를 파다가 물고기 화석을 발견한다. 물고기 화석은 이곳이 실제로 초록 호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러한 화석을 스탠리가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사막이 되기 전의 낙원, 초록 호수를 되찾는 작업을 스탠리가 수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가 물고기 화석을 발견한 것은 다른 의미도 갖는다. 물고기 화석을 발견한 날 엑스레이(X-Ray)는 “무언가 흥미 있는 것”을 스탠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넘겨라는 말을 하는데(52), 이를 기점으로 스탠리는 캠프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적응과 합리적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워든(Warden)이 관심을 보일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면 하루 일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는 하루 일을 쉬는 것보다 캠프에서 1순위인 엑스레이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생각할수록, 뭔가를 찾으면 엑스레이에게 주겠다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록호수 캠프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을 하루 안 하는 것보다 엑스레이에게 잘 보이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The more he thought about it, the more he was glad that he agreed to let X-Ray have anything he might find. If he was going to survive at Camp Green Lake, it was far more important that X-Ray think he was a good guy than it was for him to get one day off. (H 53)

그는 자신이 원시인이라는 별칭으로 캠프 내에 수용되었음을 기뻐하며 캠프의 친구들이 데릭 던을 혼내주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스탠리의 이와 같은 계산은 처음 제로와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제로는 처음에 스탠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에게 정성을 쏟느니 차라리 캠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나올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대중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자신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소외 계층에 좀처럼 관심을 주지 않는다.

스탠리의 탁월한 추리 능력은 스탠리 가문 사람들의 지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스탠리의 고조할아버지 엘리야(Elya)는 또래들이 즐기는 신체 활동보다 나이든 여성 마담 제로니(Madame Zeroni)와의 지적인 대화를 즐긴다. 스탠리의 고조할머니 역시 남편과 대화를 즐기고 지적으로도 독립적인 여성이다. 스탠리의 증조할아버지는 강도를 당한 후 사막에 버려지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 시간을 견디고 생존한다. 스탠리의 아버지는 운동화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스탠리의 고조할아버지, 엘리야는 자신의 고향인 라트비아(Latvia)를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라트비아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청혼한 여성 마이라(Myra)는 엘리야의 덕목을 전혀 볼 줄 모른다. 이에 실망한 엘리야는 성경 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Abraham)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나 미국에서 현명한 여성, 사라(Sara)와 결혼한 후 아들을 낳는다. 그 이후로 엘네츠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스탠리 엘네츠”로 불린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마이라에게 구애하기 위해 돼지를 안고 산을 올라 물을 먹이는 동안 엘리야가 신체적으로도 강건해졌고, 그 강건한 신체 덕분에 미국행 배를 탈 수 있었다는 점이다.³⁾ 엘리야를 건장하게 만든 사람은 마담 제로니였고, 마담 제로니가 미국행을 권고하였으니 엘리야와 마담 제로니 사이의 약속은 미국의 꿈과 분명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미국의 꿈과 관련된 “개인주의, 신분 상승, 인내를 통한 성취” 등의 가치를 재조명한다(Mollegaard 145).

그러나 정작 이들 가문의 역사는 꿈의 장소라 믿었던 미국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깬다. 가문의 저주라 여겨졌던 사건들은 그들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증조할아버지의 재산을 뺏고 그를 사막에 버린 사람은 케이트 발로우(Katherine Barlow)인데, 그녀는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사랑하는 연인, 샘(Sam)을 잃고 강도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폭력의 역사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초록 호수 마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제로로 대변되는 취약층은 여전히 “정

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Møllegaard 155).

스탠리의 아버지는 냄새나는 운동화를 재활용하는 데에 열중한다. 운동화가 우리 삶의 현장과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운동화를 재활용하려는 스탠리 아버지의 작업이 미국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는 과업의 연장선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탠리 가문의 저주가 마담 제로니와의 약속을 어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이민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허울뿐인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재고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지극히 개인적인 이 이주민 가족의 역사는 미국의 꿈, 미국의 역사를 반영하는 공적 역사의 일부가 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 스탠리는 뛰어난 추리력으로 자신이 발견한 것이 케이트 발로우의 립스틱 뚜껑이라는 점, 워든(Warden)이 소년들에게 구덩이를 파도록 하는 것이 케이트 발로우와 관련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임을 파악한다. 또한, 멀리 보이는 신의 엄지손가락을 닮은 산(God's Big Thumb)이 아마도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사막에 버려졌을 때 물과 안식처를 찾은 곳을 알아낸다. 스탠리의 성장은 이처럼 비만의 체구를 극복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해진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지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캠프에서 사회적인 지능을 키워간다는 점이다. 그는 제로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 좀처럼 묻지 않는다. 제로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스탠리는 제로가 말하고 싶을 때 스스로 말하도록 기다려준다.

스탠리는 다시 자기 부모님에 대해 생각했다.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탠리는 자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제로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동시에 제로가 왜 아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지 궁금했다.

Stanley thought again about his own parents, how awful it would be for them to never know if he was dead or alive. He realized that was how Zero must have felt, not knowing what happened to his own mother. He wondered

why Zero never mentioned his father. (H 195)

스탠리의 사회적 지능은 엄마를 잃어버린 제로의 심정에 공감하며, 자신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그의 부모님이 겪을 심리적 고통을 떠올리는 지점에서 다시 빛이 난다. 그는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심정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다른 주체의 고통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탠리는 마인드 컨트롤(Mind Control)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인다.

스탠리는 기억을 더듬어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푹푹 꺼 입고 있다. 엄마와 함께 병어리장갑을 낀 손을 맞잡고 걷다 그만 얼음길에 미끄러져 눈 덮인 언덕에서 구른다. 언덕 아래까지 가서야 겨우 멈춘다. 울음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지만, 영영우는 대신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 엄마도 옆에서 까르르 웃는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언덕에서 구를 때의 어쩔어쩔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컷볼에 닿던 날카로운 눈의 냉기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눈에 뒤범벅이 된 엄마가 환하고 생기 있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His brain took him back to a time when he was very little, all bundled up in a snowsuit. He and his mother were walking, hand in hand, mitten in mitten, when they both slipped on some ice and fell and rolled down a snow-covered hillside. They ended up at the bottom of the hill. He remembered he almost cried, but instead he laughed. His mother laughed, too. He could feel the same light-headed feeling he felt then, dizzy from rolling down the hill. He felt the sharp coldness of the snow against his ear. He could see flecks of snow on his mother's bright and cheery face. (H 209)

새벽 내내 노란 점박이 도마뱀 소굴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는 동안, 스탠리는 엄마와 함께 행복했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린다. 어머니와 어린 스탠리는 눈길을 걷다가 언덕에서 구른다. 그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그 순간을 행복하게 즐겼다. 그때 느낀

어지러움, 그리고 눈의 찬 기운이, 몇 시간 동안 노란 점박이 도마뱀과 함께 서 있는 그의 현재 감각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마인드컨트롤을 활용하여 그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행복했던 순간으로 치환하여 고통에 대응한다.

그러나 스탠리의 성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은 그가 자기희생을 감행할 때이다. 자석(Magnet)이 미스터 선생님(Mr. Sir)의 해바라기 씨 자루를 훔쳐서 돌려가며 먹는 과정에서 지그재그(Zigzag)가 손잡이를 묶지 않는 채 스탠리에게 자루를 던져 준다. 미스터 선생님이 D조의 소년들에게 돌아왔을 때 스탠리는 계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가 쏟아진 해바라기 씨를 흠으로 덮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그 순간 지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순간 그는 본능처럼 아무 계산 없이 자신이 해바라기 씨 자루를 훔쳤다고 말한다. 스탠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는 그가 미스터 선생님과 함께 차를 타고 워든에게로 향하는 순간 드러난다.

내리쬐는 땀별을 피해 트럭 안에 앉자 스탠리는 기분이 좋았다. 이런 순간에 무슨 이유 때문이든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지만, 어쨌든 스탠리는 기분이 좋았다. 기분전환으로 폭신한 의자에 앉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덜컹대고 달리자 후끈거리고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에 스치는, 열린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It felt good to sit inside the truck, out of the direct rays of the sun. Stanley was surprised he could feel good about anything at the moment, but he did. It felt good to sit down on a comfortable seat for a change. And as the truck bounced along the dirt, he was able to appreciate the air blowing through the open window onto his hot and sweaty face. (H 87)

미스터 선생님의 해바라기 씨 자루를 훔친 혐의를 받으며 워든에게로 향하는 이 순간은 분명 스탠리에게 큰 위기이자 공포를 안겨준다. 그러나 차 안의 의자는 안락하고 열린 창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은 상쾌하다. 위 인용문에서 물리적인 환경의 상쾌함을

주로 묘사하고 있지만, 스탠리가 느끼는 순간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희생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긍정 정서를 느낀다. 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삶을 깊이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스탠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제로였다. 제로는 스탠리가 워든에게로 갔을 때 스탠리의 구덩이를 말없이 대신 파준다. 이 순간 스탠리는 제로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로 결정하고 그와의 소중한 우정을 쌓아가기 시작한다. 이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탠리가 제로를 가르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제로가 스탠리의 구덩이를 대신 파주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스탠리는 이 과정에서 캠프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제로가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춘 아이임을, 또한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되어왔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제로는 미국 사회의 “구덩이”였던 것이다.

강규한은 스탠리가 “제로의 진면목을 알아가는 과정이” “작품 전개의 중심축인 스탠리의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17-18). 스탠리의 성장이 “묻혀있던 타자의 발견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19). 이는 스탠리가 제로와의 진정한 친밀관계 안에서 이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진면목을 인지하고 소외층의 필요와 요구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과 일직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제로는 스탠리를 때리는 지그재그의 목을 조르는데, 지그재그가 스탠리를 부당하게 모욕하는 것을 본 펜댄스키(Pendanski)가 그 백인 아이들의 싸움을 소극적으로 지켜본 것과 다르게, 제로가 백인 아이, 지그재그의 목을 조를 때에는 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하며 캠프의 구성원들을 모아 들인다. 펜댄스키는 “폭동이 일어났다”(There was a riot)고 말하고(136), 워든과 함께 제로를 모욕한다.

“제 구덩이는 제가 파면서 제로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는 데에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뭔지 내가 말해주지. 말썹이 생기기 때문이야. 하마터면 제로가 지그재그를 죽일 뻔했잖아.” 소장의 말에 펜댄스키 선

생님도 거들고 나섰다. “제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너야 좋은 뜻으로 그런 일을 했겠지만, 현실을 봐야지. 제로는 읽는 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멍청해. 그래서 피가 끓어오르는 거야. 피약별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구덩이는 안 팔 겁니다.” 제로가 말했다.

"Why can't I dig my own hole, but still teach Zero to read?" he asked.
 "What's wrong with that?" "I'll tell you what's wrong with that," the Warden said. "It leads to trouble. Zero almost killed Zigzag." "It causes him stress," said Mr. Pendanski. "I know you mean well, Stanley, but face it. Zero's too stupid to learn to read. That's what makes his blood boil. Not the hot sun."
 "I'm not digging another hole," said Zero. (H 139)

제로가 완전히 바보라서 학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순간 제로는 자신을 모욕하는 펜댄스키를 삽으로 가격하고 더이상 구덩이를 파지 않겠다고 말하며 캠프를 떠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리는 정의의 가치를 떠올린다. 캠프에서 그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것이 생존 그 자체였다면, 이제 그는 무엇이 정의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스스로 정립해 나간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 이성적 판단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증조할아버지에게 안식처를 제공했을 산에 대한 정보는 오직 그만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캠프로 돌아와야 하겠지만, 그 사이에 사막을 헤매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제로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설득해 캠프에 돌아와서 워든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당장 제로를 찾지 않으면 제로는 죽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스탠리는 급수차를 훔쳐 몰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다. 이제 스탠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다. 이전에 그의 가문 사람들은 불운에 빠질 때마다 고조할아버지 탓을 했었다. 고조할아버지가 마담 제로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탠리는 이번에 불운을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급수차를 훔쳐 구덩이에 빠진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오직 그만이 그 행동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148).

제로와 스탠리는 “메리 루”(Mary Lou)라는 썸의 뒤집힌 배에서 다시 만난다. 이 배는 두 아이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그 안에 있던 복숭아 절임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한다.⁴⁾ 아이들은 이제 신화적 공간인 신의 엄지 산(God’s Big Thumb)을 향해 길을 떠난다. 이 과정에서 두 아이는 서로 협력하여 산을 오르고, 스탠리는 배앓이를 하는 제로를 들쳐업고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간다. 이 모습은 다인종 국가인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일종의 엠블럼(emblem)이다. 소년들은 익숙한 곳을 떠나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함께 일으켜주며 “같이 가야 한다.” 이 료써 이주민들에게 지켜지지 않았던 미국의 꿈을 향한 길이 열리고, 제로니 가문과 스탠리 가문이 화해하며, 과거 인종차별로 인해 생긴 갈등이 치유된다.

두 소년은 썸의 양과밭이 있던 곳에서 쉬며 물과 양과를 충분히 먹는다. 지친 몸을 누인 산에서 스탠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절정경험을 한다.

이틀 뒤, 스탠리는 누워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스탠리는 행복에 겨워 잠이 오지 않았다. 행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스탠리도 알았다. 스탠리는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푸근해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했다. 스탠리는 지금 자기가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느낀 때가 언제였는지 스탠리는 기억도 나지 않았다. 초록호수 캠프로 보내진 일 말고도 스탠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일은 무지 많았다. 학교에서도 불행했다. 친구도 없었고 데릭 던 같은 녀석들이 괴롭히기만 했다. 아무도 스탠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스탠리 자신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

Two nights later, Stanley lay awake staring up at the star-filled sky. He was too happy to fall asleep. He knew he had no reason to be happy. He had heard or read somewhere that right before a person freezes to death, he suddenly feels nice and warm. He wondered if perhaps he was experiencing something like that. It occurred to him that he couldn't remember the last time he felt happiness. It wasn't just being sent to Camp Green Lake that had made his life miserable. Before that he'd been unhappy at school, where he had no friends,

and bullies like Derrick Dunne picked on him. No one liked him, and the truth was, he didn't especially like himself. (H 186)

그는 너무나 행복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새로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존적 판단과 결심으로 행동하고, 제로와 친밀관계를 발전시키며,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켰기에 그는 긍정 정서를 느낀다. 드디어 자아실현을 이룬 것이다.

3. 긍정심리학과 성장의 메커니즘

한미야는 자기자비의 구성요소인 자기친절(self-kindness), 공통의 인간성에 대한 감각(a sense of common humanity), 마음챙김(mindfulness)으로 스탠리의 성장과정을 설명한다(123). 예컨대, 스탠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성 및 인간 존재라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경험을 해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인식해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자비는 “자신의 경험, 특히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판단하기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 전체의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내면을 이해와 포용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124). 자기자비의 개념은 긍정심리학의 관점과 일부 겹치지만, 스탠리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탠리의 긍정정서가 무엇에 의해 촉발되었는지,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강점을 계발해 나가는지, 그가 속해 있는 기관이 긍정기관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스탠리의 성장 메커니즘을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스탠리의 긍정적 측면을 신체적, 심리적, 대인관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권석만의 지적처럼 “삶은 육체와 정신,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이다”(24-25). 다시 말해 개인의 성장은 그가 속

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초록 호수 캠프라는 장소의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다. 테일러(Taylor)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고통과 불운에 대해 “방향감, 효능감, 자기가치감을 얻기 위해 의미를 추구한다.” 방향감이란 “고통으로부터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효능감이란 “그러한 상황에 통제감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것”, 자기가치감이란 “고통과 불운 앞에서 자기가치감을 유지하려 함을” 의미한다(권석만 457). 초록 호수 캠프에서 스탠리는 난생처음 고된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교정시설의 부정적 상황에서 방향감, 효능감, 자기가치감을 발견해 나간다.

우선 그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과제중과 허약한 체력을 해결하면서 그는 점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의 큰 체구는 같은 캠프 동료들로 하여금 “월시인”이라는 별칭을 부여하게 한다. 이곳에서 몸집이 크다는 것은 따돌림의 원인이 아니라 육체적 힘과 활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정체성은 스탠리에게 신체적인 활력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다른 캠프 구성원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매슬로우(Maslow)의 위계적 발달론(권석만 484)을 따라 스탠리는 캠프에서 생리적 동기, 안전의 동기, 사랑과 소속감의 동기, 존중의 동기, 그리고 자기실현의 동기를 차례차례 충족시킨다. 그는 의식주의 문제에 적응하고, 캠프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질서를 존중한다. 또한, 캠프 구성원에게 가장 무시를 당하는 제로와 진정한 친밀관계를 형성하며, 마지막으로 자기실현 동기를 충족시킴으로써 긍정정서 및 행복을 느끼게 된다.

스탠리의 성장 과정은 자존감, 통제감, 긍정적 대인관계, 인생의 목적의식을 획득하는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스탠리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우호적 태도⁵⁾”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캠프 사회에서 일원으로 인정받은 것에서 시작하여, 스스로를 희생하고 정의의 가치를 확립하며 그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성취한 것이다. 그는 이전에 모든 불운을 고조할아버지와 관련된 저주로 돌렸지만, 이제 자신의 가치를 직접 행동에 옮김으로써 “삶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 즉, 통제감을 얻게 된다. 이러한 통제감은 “자기유능감, 삶에 대한 자신

감,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심어주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권석만 116). 스탠리는 “비교이론”에서 설명하듯이 “과거의 삶, 이상적 자기상, 지향하는 목표와 자신의 현재 목표를 비교하면서”(권석만 148) 자신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감을 확인한다. 이렇게 연계 된 긍정 정서는 “미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자원을 축적하는 데에 기여하고(권석만 97),”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고, 창조적인 도전을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한다”(권석만 80-81). 다시 말해 긍정정서와 행복감은 구성원이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며, 다른 구성원과의 진정한 친밀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진정한 친밀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다.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신의 중요한 측면을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해와 인정,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권석만 381)이 중요하다. 이는 제로와 스탠리의 친밀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처음 스탠리에게 제로는 함께해서 별 이득 될 것이 없는 관심 밖의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스탠리의 자기희생과 무고함을 이해하는 제로가 스탠리의 구덩이를 대신 파주면서 우정이 싹트고, 스탠리는 제로의 영민함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들의 첫 우정은 “형평 이론”에 따라 제로가 스탠리에게 글을 배우는 대신 그 시간만큼 스탠리의 구덩이를 파주는 거래로 시작된다. 권석만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자신들이 관계에 투자하는 양에 비례하여 관계로부터 적절한 이득을 얻는다고 지각할 때 친밀관계가 유지된다고”(390) 설명한다.

그러나 제로와 스탠리의 친밀관계는 스탠리가 제로를 찾기 위해 자신이 캠프에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온 “안전한 환경과 사회적지지”를 벗어나면서 급 전환된다. 스탠리는 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심정에 공감하며, 그를 보살핀다. 제로 역시 스탠리의 무고함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의 고결한 성품을 인정하며,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기울인다. 이들의 진실한 친밀관계는 스탠리의 자기실현으로 이어

진다. 앞장에서 설명한 스탠리의 절정 경험은 “자기실현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일시적 경험이기도”(권석만 94-95) 하다. 그는 자신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투신한다. 이로써 이상적 자기 상에 근접하였음을 의식하였다. 이러한 절정 체험을 통해 스탠리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산되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며, 인생의 목표의식을 갖게 되고, 조화와 통합의 느낌을 얻는다”(권석만 94-95).

다시 말해 스탠리에게 관계의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는 제로와의 친밀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과 통제감을 느끼게 된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존감과 통제감, 친밀관계,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스탠리가 캠프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의미부여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대처는 “능동적인 적응과정”으로서,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역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권석만 158). 이를 위해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며,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무시하지 않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사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지니고 최선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처를 할 것이” 제안된다(권석만 160). 이러한 대처의 중요한 한 측면은 바로 의미 추구이다.

프랭클(Frankl)은 의미 추구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 주장한다(권석만 447). 삶에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의식, 가치 있는 것, 인생에 대한 자신의 효능감과 통제감을 추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원한다”(권석만 448-49). 캠프에서, 그리고 제로와 함께 하는 여정에서 스탠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환경과,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그 환경에 대처한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통제감과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탠리는 삶의 순간을 향유하게 된다. 향유하기란 “긍정적 경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외부대상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는” ‘세계조점적 향유’와 “자신의 긍정적 특성이나 성취에 대한” ‘자기조점적 향유’로 구분된다(권석만 443).

작품 안에서 스탠리는 세계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깊이 향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행복을 위해 우리 삶에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의미부여가” 중요하다(권석만 450). 이러한 의미부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우리 자신을 향한 향유로 이어진다. 그리고 삶과 세상을 충분히 향유할 때 우리는 긍정 정서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스탠리가 『구덩이』에서 보이는 성장 과정은 그의 핵심 덕목과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으로 일괄할 수 있다.⁶⁾ 스탠리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 수용적인 태도로 학습하고 적응한다. 그는 캠프 구성원은 물론이고 제료를 향해 순수한 애정을 보여주며, 자신이 믿는 가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를 보여준다. 그는 관계 형성 과정에서 호기심이나 선부른 판단을 절제하고, 자신의 안락함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선과 정의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존재감의 욕구가 진실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충족됨으로써 인생을 “산에서 내려다보듯” 삶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다. 그 결과 그의 과거, 현재, 미래는 새로운 의미를 입고,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스탠리의 성장 과정은 셀리그만(Seligman)의 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한데, 행복한 삶은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하는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 된다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권석만 34, 496).

스탠리의 성장은 또한 긍정적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케예즈(Keyes)는 긍정적 정신건강이 정서적 안녕, 심리적 안녕, 사회적 안녕의 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서적 안녕이란 긍정 정서, 행복감, 삶의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고, 심리적 안녕은 환경의 통제,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자율성, 인생의 목적, 자기 수용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안녕은 사회적 수용, 실현, 기여, 일치, 통합을 의미한다(권석만 496-97).

앞서 설명했듯이 삶은 육체와 정신, 자신과 타인,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펼쳐지고, 삶의 향유와 의미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 긍정적인 대인 관계, 사회 문화적 토양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성장이 그 개인의 강점에 머무

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관계를 통해 사회 속에서 꽃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4. 긍정기관을 향하여

이 작품에 등장하는 스탠리 집안의 사람들은 (보통 미국의 시트콤에서 재생산하는) 미국인의 전형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가족적이며 성실하고, 유머가 넘치며, 희망적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모든 스탠리 옐네츠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엄청난 불운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 스탠리의 아버지가 “나는 실패에서 배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주의 일부분일지 모른다. 만약 스탠리와 스탠리 아버지가 늘 희망을 품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매번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All of them had something else in common. Despite their awful luck, they always remained hopeful. As Stanley's father liked to say, "I learn from failure." But perhaps that was part of the curse as well. If Stanley and his father weren't always hopeful, then it wouldn't hurt so much every time their hopes were crushed. (H 9)

스탠리의 아버지가 희망을 잃은 적이 없기에 실패할 때마다 큰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나는 실패에서 배운다”는 판에 박힌 말은 미국의 낙관주의와 경험주의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꿈”이란 미국에서 개인이 노력하는 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미국에서 구시대의 계급, 계층 보다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삶에서 구체화 된다.

미국인들은 또한 개인이 이룩한 물질적 부는 천박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이현송 387). 이에 미국 특유의 낙천주의는 언제나 개인의 노력으로 부를 이루고 꿈을 성취해갈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이현송 57, 384).

그렇다면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미국은 어떤 모습인가? 우선, 제로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꿈 이면에 숨겨진 구멍이다. 제로는 캠프 밖이나 안에서 철저히 무시당해왔다. 그의 개인적인 능력, 총명함은 사회, 문화의 기본적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려져 있다. 캠프 내에서 그가 어떤 장점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사회의 혜택을 전혀 누리보지 못한 계층이 글을 익히지 못한 것을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인종 자체의 열등함으로 치부하는 것을 드러낸다.

제로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나 보호소에서 자라왔다. 그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냥 가져왔는데, 어린 시절 절도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선수의 신발을 훔칠 때 그는 단지 운동화가 필요했고, 새 운동화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누군가 쓴 헌 운동화를 가져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다(184). 글을 읽지 못하고, 단지 운동화가 필요했던 그에게 유명 운동선수의 운동화는 그냥 헌 운동화에 불과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운동화가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용으로 팔릴 예정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운동화의 주인은 제로일 수 있었지만, 부조리한 사회의 어른들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제로와 스탠리라는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고 이들의 “인성을 개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사실 기부라는 행위가 따뜻한 나눔일 수 있지만, 사회의 부조리를 가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은 자선 활동을 통해 그들을 돕고 있다고. 사회의 빈 구멍이를 자선 행위를 통해 메우고 있다고 수혜를 베풀 듯 선한 가면을 쓰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개인의 자선 활동이 모든 부조리를 메우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 사회 기득권층에게 ‘집 없는 아이들’은 추상적인 존재이다. 바로 옆의

제로를 보지 못하고 그저 멀리 있는 어떤 집단으로 간주한다.

이렇듯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중요한 인물이 미국의 꿈을 대변하는 펜덴스키이다. 그는 캠프의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망쳐놓은 것은 너희 자신이고, 너희도 사회에 나가면 다시 훌륭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57-58). 그는 또한 캠프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묻는다. 마치 아이들이 각자 꿈을 갖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것처럼 공허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이때 “심지어 제로조차”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로에게 “캠프 밖에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고 제로는 “구덩이 파기를 좋아한다”고 답변한다(58). 철저히 무시 받는 제로는 진실한 대화를 거절함으로써 사회의 공허한 낙관주의에 반항한다.

이때 펜덴스키의 이름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펜덴스키가 미국의 꿈을 대변하는 허상이지만, 진정한 미국의 꿈은 그의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 작가는 ‘펜’(Pen)을 통해 미국 역사의 구덩이, 미국의 병폐를 발굴한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만으로 미국의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구성원들이 어떤 의식(ritual)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화합이 “댄스”라는 단어에 압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미국의 꿈을 이루는 ‘열쇠’는 다양한 인종과 특성을 가진 모든 계층의 인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마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을 이루어 춤을 춤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확인, 강화하듯이 미국 역시 다양한 구성원들이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펜덴스키를 작품 안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펜덴스키는 스탠리가 첫 구덩이를 뚫을 때 쓰러지지 않았는지를 염려해주기도 하고(40), 미스터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은 스탠리에게 여분의 물을 더 주는 자상함도 지녔다(116). 지그 재그가 부당하게 스탠리를 괴롭힐 때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힘을 주기도 한다(135). 그를 D조의 아이들은 친근하게 “엄마”(Mom)라 부른다. 그런 펜덴스키가 유독 제로를 무시한다. 또한, 제로와 스탠리가 한밤에 구덩이를 파서 가방을 발견했을 때, 아이들이 도마뱀에 물려 죽기를 기다리는 냉혹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냥 저것들을 총으로 쏘버리는 게 어떨까요?” 펜덴스키 선생님이 말하자,

한 상담 선생님이 물었다. “뭘? 도마뱀, 아니면 애들?” “어차피 재들은 죽은 목숨이야.” 펜댄스키 선생님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꺾꺾 웃으며 말을 이었다. “무덤 걱정할 일은 없겠다. 사방에 널려 있으니.”

"Maybe we should just shoot them," suggested Mr. Pendanski. "Who?" asked a counselor. "The lizards or the kids?" Mr. Pendanski laughed grimly. "The kids are going to die anyway." He laughed again. "At least we got plenty of graves to choose from." (H 207-08)

그는 “아이들은 어쨌든 죽을 것이고 구덩이가 많으니 그중에서 선택하여 그들을 묻어 버리면 된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작품에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미국의 시스템을 옹호하면서 소외 계층을 무시하고, 그들을 모욕하는 제도권의 대변자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펜댄스키의 노력이 캠프의 아이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아이들은 펜댄스키가 캠프 밖으로 나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대해 공허한 반응만 내어놓는다(55-58).

초록 호수 캠프에서 스탠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캠프의 본 목적이 케이트 발로우가 숨겨 놓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험하고 걸스카우트 캠프가 아니지만, 실제로 스탠리에게는 걸스카우트 캠프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캠프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자존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캠프의 특성은 어떠한가?

캠프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서열은 몸집이나 인종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인종의 구성원이 같은 인종에게 특별히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 공동체에서 인종차별은 찾기 힘든데(강규한 12), 모두가 피약별 아래에서 구덩이를 파느라 흠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84). 아이들은 제도권에서 불린 이름보다 캠프 아이들이 불러주는 별칭을 선호한다(20, 74).

그러나, 이곳에도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비록 캠프 밖 사회의 기준으로 서열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엑스레이를 정점으로 마지막 제로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위계와 규칙이 존재한다. 스탠리는 엑스레이의 요구를 들어주었기에 가장 늦게 캠프에

왔음에도 제로의 앞을 차지한다(63). 엑스레이가 쓰는 삽 역시 다른 아이들의 삽보다 길이가 짧는데, 이것은 삽을 기준으로 구덩이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이다(27). 다시 말해 기존 사회와는 다른 정체성을 갖고자 하지만, 이들은 공동체 내에 나름대로 사회의 위계를 적용하고 있다.

사회의 위계와 관련하여 캠프 구성원이 예민해지는 것은 바로 일부 계층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이다. 아이들은 제로가 스탠리에게 글을 배우면서 잠시 스탠리의 구덩이를 대신 파주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다. 이들은 스탠리가 제로를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말하며 스탠리를 괴롭힌다(132). 비록 아이들이고 캠프라는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 일부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인종차별, 불평등을 피부로 느껴왔다. 그리고 식민주의의 사회, 종교적 허울을 빚대어 스탠리를 조롱한다. 이들은 스탠리가 제로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힘을 아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라고 응수하는데(117), 이 말은 스탠리가 제로를 가르친다는 것을 서구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원주민을 “문명화시킨다”는 명분과 빚대어 빈정대는 것이다. 이는 캠프 사회가 스탠리의 성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일반 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하는, 그리고 그 부조리에 민감한 작은 사회임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미국이 구성원들의 강점을 계발하고 그들이 긍정 정서를 느끼며 자아실현을 이룩하도록 하기위해 이 작품은 어떤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가? 미국이 긍정 기관이 되려면 무엇보다 미국의 꿈이 약속하듯 “개인의 노력과 의지로 자아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사회의 약자층을 보듬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제로와 같은 취약층이 목소리를 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시해야 한다. 헌 운동화를 재활용하려는 스탠리 아버지의 프로젝트처럼 미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숙고하여 그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주체가 다른 주체를 일방적으로 이끌어주기보다, 제로와 스탠리가 그러하였듯이 각 주체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인정해주며 함께 키워야 한다. 스탠리와 제로가 신의 엄지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제로의 방향 감각과 수리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제로는 삼의 날을 자신의 손으로 지탱하고 스탠리를 벼랑에 올려세웠고, 스탠리는 땅을 파는 기능과 체력으로 제로를 업고 산을 올랐다. 이들은 서로를 독려하며 산을 오르고 또 캠프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현 운동화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스탠리 아버지의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 중간 과정에서 그는 발 냄새를 없애주는 스프레이를 개발하였다. 이는 미국이 한순간에 모든 저주를 풀었다기보다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준다. 과거의 폐단이 작품을 통해 드러났고, 긍정 기관으로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기에 이 작품의 독자층인 아동, 청소년들이 새로운 미국을 창조해야 한다. 어린 제로가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놀이터에 있을 때, 그를 경계하고 쫓아내려는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제로에게 다가와 함께 놀 것을 권하였었다(195). 인종이나 계급, 계층에 따라 차별하는 어른과 달리 새로운 세대인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호혜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계발하도록 하여 중국에는 이들과 함께 미국이라는 국가를 긍정 기관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 작품에는 세 가지의 저주가 등장한다. 그 하나는 스탠리의 고조할아버지 엘리야가 마담 제로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생긴 가문의 저주이고, 두 번째 저주는 편협한 종교관과 인종차별로 인해 하늘에서 초록 호수 마을에 내리는 저주이다. 마지막 저주는 케이트 발로우의 보물을 찾기 위해 땅만 파게 되는 워든 가문에 내려진 저주이다. 이 저주는 제로니 가문의 제로를 엘리야 가문의 후손인 스탠리가 업고 산에 올라가 물을 먹이며 노래를 했을 때 풀어진다. 두 번째 저주는 케이트와 샘의 순수한 사랑이 서로 다른 인종인, 제로와 스탠리의 진정한 친밀관계로 이어지면서 풀릴 전망을 보인다. 마지막 저주는 결국 워든이 찾던 보물의 진정한 주인인 스탠리가 서류 가방을 얻게 됨으로써, 그리고 워든과 캠프의 실체가 날났이 드러나고 캠프가 걸스카우트 캠프로 변화하면서 풀어진다.

5. 나가는 말

루이스 썬커의 『구덩이』는 이처럼 미국의 병폐와 실체를 미국의 꿈 측면에서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문학 형식을 취함으로써 현실의 암울함을 강조하기보다 어떻게 해야만 미국의 꿈이 이민자들에게 제시한 약속을 이루어 저주를 풀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실제 전망이 100% 긍정적인 수 없을지라도 이 작품은 주인공 공 소년들의 친밀관계와 성장 과정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미국이 긍정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을 프리즘으로 『구덩이』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성장과 함께 요구되는 것은, 그 개인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 기관의 역할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취약층에 대한 자선이라기보다 그들의 강점을 계발하게 하고 인정해주며 함께 협력하는 길임을 이 작품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보통 『구덩이』는 아동청소년문학의 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학자들은 이 작품의 행복한 결말은 물론, 에필로그(epilogue)의 형식을 아동청소년문학의 한계로 치부해 왔다. 캐든(Mike Cadden)은 그의 논문에서 아동문학의 특성상 작가는 독자의 정서적 만족(emotional satisfaction)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 결말부에 에필로그를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긍정적인 결말이 지속된다는 점을 결말에서 확인시켜줌으로써 독자에게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에필로그는 작품에서 다룬 서사 이후에 인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직접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석의 주체로서 독자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Cadden 345). 그러나 캐든은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플롯보다는 캐릭터의 행복일 수 있고, 에필로그에서 현재와 미래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독자는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평한다(346).

그러나 명백히 이 작품을 통해 독자는 제로와 같은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문제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엘셋(Janet

Alsup)이 지적하듯이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비판적 사고자”(critical thinker)를 넘어서서 “비판적 감정의 소유자”(critical feeler)가 되는 것이고, 문학작품을 통해 이러한 자질을 기를 수 있다(158). 공감과 이해를 통해 사회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고, 이로써 문학작품은 독자를 실천으로 이끈다. 『구덩이』 속 주인공의 성장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제로를 이해하며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성인보다 유연성이 뛰어난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 작품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자들이 언급하는 스텐리 캐릭터의 일관성 부족은 긍정적 결말을 위해 성급하게 봉합된 것이라기보다 세계시민 개념, 비판적 감성 및 성장을 향한 전망을 내놓은 것임을 인지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작품이 아동청소년 문학이라는 형식적 틀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작품은 동화적, 신화적 형식을 따르면서 사회의 이면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화적 마무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은 현실을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에서 비꼬고, 진정한 해피엔딩을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조건으로 내놓는다. 비록 아동청소년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아동청소년들의 관심을 담고 있지만, 성인 문학 못지않은 뼈아픈 문제의식과 비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성인들이 읽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작품의 말미에 스텐리는 제로의 이름을 헥터(Hector)로 바꾸어 부른다. 이전에 일반 사회와 캠프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던 헥터의 정체성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 사회의 구덩이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채워진다. 이들은 더이상 묻히거나 사이버 세상의 구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 할 때 바로 설 것이다. 다시 말해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시혜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때, 미국 사회와 기득권층 역시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캠프에서 구덩

이를 파냄으로써 건장해진 스탠리가 건장한 몸과 마음으로 제로를 지탱하며 산을 오른 부분에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연약해 보이는 헥터가 스탠리를 벼랑에 오르도록 끌어주는 부분은 소외 계층의 잠재력과 힘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헥터와 스탠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산을 오르는 모습, 그것은 아동청소년 문학의 행복한 결말을 통해 작가가 미국 사회에 던지는 심오한 긍정기관의 청사진인 것이다.

Notes

- 1) 이후 『구덩이』의 한글 번역은 김영선 번역본(창비, 2007)을 참고하였음.
- 2) 김양순은 이와 같은 거울 이미지가 이 소설의 순환적 구조를 암시해주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나타내 준다고 설명한다(36).
- 3) 미국행 배의 선장은 엘리야의 강건한 신체를 보고 그를 선원으로 받아들인다.
- 4) 샘과 케이트와의 복숭아 절임과 노동의 교환은 제로와 스탠리의 가르침과 노동의 교환과 비슷하다. 이 작품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 구성원의 강점과 장점을 활용하는 데에 있지, 어느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 5) 이를 권석만은 자존감으로 정의한다(113).
- 6) 긍정심리학에서 언급하는 핵심덕목(VIA)은 지혜, 자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이다.

인 용 문 헌

- 강규한. 「『구덩이』에 형상화된 환경 파괴와 복원의 우화」. 『영미문학교육』, 22집 1호, 2018, 5-27쪽.
- 권석만. 『긍정 심리학』. 학지사, 2008.
- 김양순. 「『구덩이』의 심층적 의미 찾아보기: 상징과 이야기 구조의 상관성」. 『영미문학교육』, 22집 1호, 2018, 29-47쪽.
- 루이스 새커. 『구덩이』. 김영선 옮김, 창비, 2007.
- 양윤정. 「루이스 새커의 소설 『구덩이』에 나타난 동화적 특성」. 『영미문학교육』, 22집 1호, 2018, 73-92쪽.
- 이현송. 『미국 문화의 기초』. 한울, 2006.
- 한미야. 「자기자비에 이르는 길: 루이스 새커의 『구덩이』」. 『영미문학교육』, 22집 1호, 2018, 119-42쪽.
- Alsup, Janet. "Politicizing Young Adult Literature: Reading Anderson's "Speak" as a Critical Text."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vol. 47, no. 2, October 2003, pp. 158-66.
- Cadden, Mike. "The Epilogue in Children's Fantasy Fiction." *Narrative*, vol. 20, no. 3, October 2012, pp. 343-56.
- Møllegaard, Kirsten. "Haunting and History in Louis Sachar's *Holes*." *Western American Literature*, vol. 45, no. 2, Summer 2010, pp. 138-61.
- Nikolajeva, Maria. "The Changing Aesthetics of Character in Children's Fiction." *Style*, vol. 35, no. 3, Fall 2001, pp. 430-53.
- Sachar, Louis. *Holes*. Bloomsbury, 1998.

Abstract

Reading *Holes* by Louis Sachar through the Frame of Positive Psychology

Seojung Kang
Kookmin University

Holes by Louis Sachar provides a hopeful vision for the United States (U.S.) as a positive institution, while illuminating a process of growth on the part of the protagonist, Stanley Yelnats through a close relationship with Zero, or Hector Zeroni. A reading of this masterpiece through the frame of Positive Psychology suggests important points for the U.S. to move forward. Along with personal growths of members of a society, it is important for the nation to be a positive institution so that it propels residents to fulfill themselves within it. This work emphasizes that the U.S. should provide vulnerable individuals with opportunities to fully develop their strengths, rather than charity. The voices of the vulnerable can be heard only when they can play a leading role in society, where they can rise to their full potential. The scene where Stanley and Zero encourage each other to continue their climbing is itself a prospect for the nation's future given through a happy ending of young adult literature.

Keyword: *Holes*,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Dream, Positive Traits, Positive Institutions

논문접수일: 2022.01.19

심사완료일: 2022.02.10

게재 확정일: 2022.02.25.

이름: 강서정

소속: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이메일: sjkang@kookmin.ac.kr